

#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성정혜<sup>1)</sup>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Amos의 다집단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아동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 아동학대

## I. 서론

온라인 기반의 인프라가 일상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사이버 세상은 아동에게 현실과는 또 다른 하나의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온라인을 활용한 여가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그 활동으로는 오락, 정보제공,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아동기는

1) 해운심리상담센터 원장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Piaget, 1964),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논리적 조작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공간과 같이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문제해결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기능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의도적이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행해지는 괴롭힘을 의미한다(Hinduja & Patchin, 2014). 푸른나무재단(2021)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16.3%가 응답하였고, 이는 2019년에 5.3%로 응답한 것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로 나타남으로써 사이버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의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에 대해 청소년은 29.2%, 성인은 15.7%가 경험해보았으며, 이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급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27.1%, 중학교 22.9%, 고등학교 20.1%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을 행하는 이유로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가 36.8%로 1순위였으며, ‘재미나 장난으로 시작하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가 26.2%로 2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부족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보복행위로 사이버폭력이 다시 악순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의 일상화로 사회적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사이버 세상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을 통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사이버폭력 감수성과 관련이 있다.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이버폭력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고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여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는 사회·정의적·행동적 개념으로(백선희, 2020; 조운정, 2006),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기본이 된다. 이러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함께 구성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다. 공동체 의식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는 의식으로 정의된다(고정리, 2013).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사회성과 관련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긍정적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경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높다(권혁기, 2021). 반면, 공동체 의식이 낮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해소

하기 위한 자신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이 보장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정서를 공감하기 보다는 통제되지 못한 정서적·인지적·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더욱 쉽게 나타날 수 있다. 김진영과 장기열(2019)은 사이버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공동체 의식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동체 의식은 사이버폭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적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 규칙을 습득하여 지켜나가는 등의 경험을 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나가게 된다(고미숙, 2016). 이진선과 강영숙, 오종철 외(2019)은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욱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으며, 구지윤과 김유나(2016)는 공동체 의식이 연대감과 공감성,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향상시켜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교적응은 사회성 발달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아동의 행동이 적절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교사 및 또래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흥미와 동기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며, 학교의 규범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권미나, 2007). 학교적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며,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에 대해 문제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을 수 있다(고수연, 배성만, 2018).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에 따르면, 타인과의 정서적으로 안정된 긍정적 관계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호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즉, 학교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토대로 한 학교적응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하아영과 조한익(2020)은 높은 수준의 학교생활적응은 사이버 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공동체 의식뿐 아니라 학교적응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미디어 중독도 고려해보아야 할 주요한 요인이다. 교육을 제공하는 하나의 매체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부분이 증가하면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화되어 가면서 미디어 중독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공동체 의식이 낮은 아동은 현실에서 소속감을 얻지 못하고, 온라인 세상에서의 대인관계에서 이를 보상받고자 한다. 김은경(2014)은 초등학생의 공동체 의식 향상은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미디어 중독은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개인의 통제 및 조절능력이 상실되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최연, 2012), 이러한 미디어 중독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며, 현실과는 다른 온라인상에서 적용되는 규칙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란희와 유형근, 남순임(2015)은 미디어에 중독되면 온라인상에서의 윤리의식 수준이 더욱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디어 중독이 다른 변인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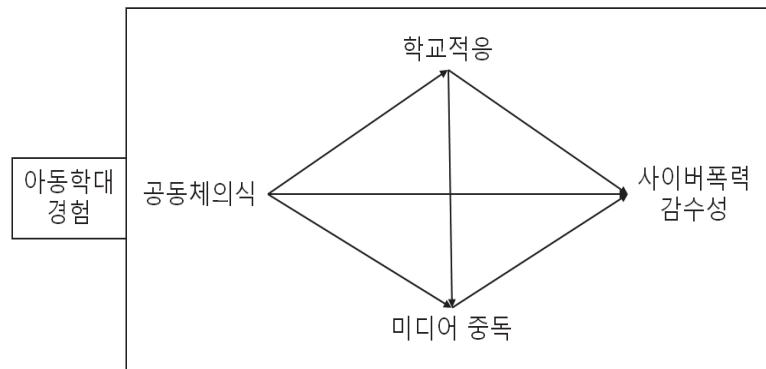
아동기의 발달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생태체계적 요인들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아동기 발달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부모와의 관계가 이후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에 장애물이 된다. 보건복지부(2021)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수가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 2020년 30,90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82.1%가 부모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이들을 애정으로 돌보아야 할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아동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아동학대를 겪은 아동은 인지적·정서적·신체적으로 긍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적절한 지도 및 통제의 부재로 인해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폭력 같은 행동적인 어려움도 나타날 수 있다(김선아, 2017; 우수정, 2018).

이러한 아동학대와 아동기의 부적응적 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성희와 강현아(2020)는 아동학대를 경험하면 친구들과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공동체 의식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박영준과 성효정(2014)은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은 학교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재엽과 황현주(2016)는 아동학대로 인해 충족되지 못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던 스마트폰에 점차 중독된다고 하였다. 아동학대 경험과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모 학대로 인해 공격성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사이버 비행 고위험군이 된다는 정규형과 이상훈(2015)의 연구결과와 초등학생의 아동학대 경험이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동에 쉽게 연루되게 한다는 표갑수와 김혜정(2012)의 연구결과가 아동학대 경험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변

인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하게 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영향력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각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학대의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차이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2008년 기준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13차년도(2020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13살)에 재학 중인 13차년도(2020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서 1,354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아동학대 경험 없음		아동학대 경험 있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아	499	48.4	192	58.7
	여아	533	51.6	135	41.3
출생순위	첫째	469	45.4	169	51.7
	둘째	436	42.2	128	39.1
	셋째	111	10.8	29	8.9
	넷째이상	16	1.6	1	0.3
어머니 연령	30대	149	14.4	46	14.1
	40대	837	81.1	263	80.4
	50대 이상	46	4.5	18	5.5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6	25.8	96	29.4
	대학교 졸업	702	68.0	210	64.2
	대학원 졸업 이상	64	6.2	21	6.4
아버지 연령	30대	52	5.1	13	4.0
	40대	833	80.7	264	80.7
	50대 이상	147	14.2	50	15.3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8	25.0	94	28.7
	대학교 졸업	645	62.5	204	62.4
	대학원 졸업 이상	129	12.5	29	8.9
휴대폰 소유	있음	975	94.5	312	95.4
	없음	57	5.5	15	4.6
미디어 사용시간	1 ~ 3시간	779	75.5	224	68.5
	4 ~ 6시간	237	22.9	92	28.2
	7 ~ 9시간	12	1.2	5	1.5
	10 ~ 12시간	4	0.4	6	1.8
	전체	1,032	100	327	100

## 2. 측정도구

### 가. 아동학대

아동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의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동학대는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으며 총 2문항으로, 신체적 학대와 언어학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전혀 없음)에서 5점(거의 매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학대에 따른 집단 분류는 2문항(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나를 심하게 대한 적이 있다, 부모님은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한 적이 있다)의 총합을 기준으로 2점인 경우 아동학대 경험이 없음, 3점 이상인 경우 아동학대 경험이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 나.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종단연구 2013년'에서 수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참여의식과 타인배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전체 .852, 참여의식 .723, 타인배려 .827로 나타났다.

### 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민병수(1991)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전체 .898, 학습활동 .706, 학교규칙 .781, 교우관계 .643, 교사관계 .881로 나타났다.

### 라. 미디어 중독

미디어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iapc.or.kr)에서 제공하는 K-척도(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관찰자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자료

를 활용하였다. 하위요인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동일과 이은아, 정여주 외(2008)의 연구를 토대로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어머니가 자녀의 미디어 기기 사용에 대한 행동을 관찰하여 응답한 것으로 응답 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중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전체 .857, 일상생활장애 .780, 금단 .755, 내성 .638로 나타났다.

#### 마. 사이버폭력 감수성

사이버폭력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2015)에서 실시한 정보문화 실태조사에서 다양한 인터넷 역기능 현상들에 대한 문제성 인식 정도를 의미하는 인터넷 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감수성'이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Rest와 Brouers(1983)의 정의를 참고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면서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문제가 된다(5점)'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감수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전체 .984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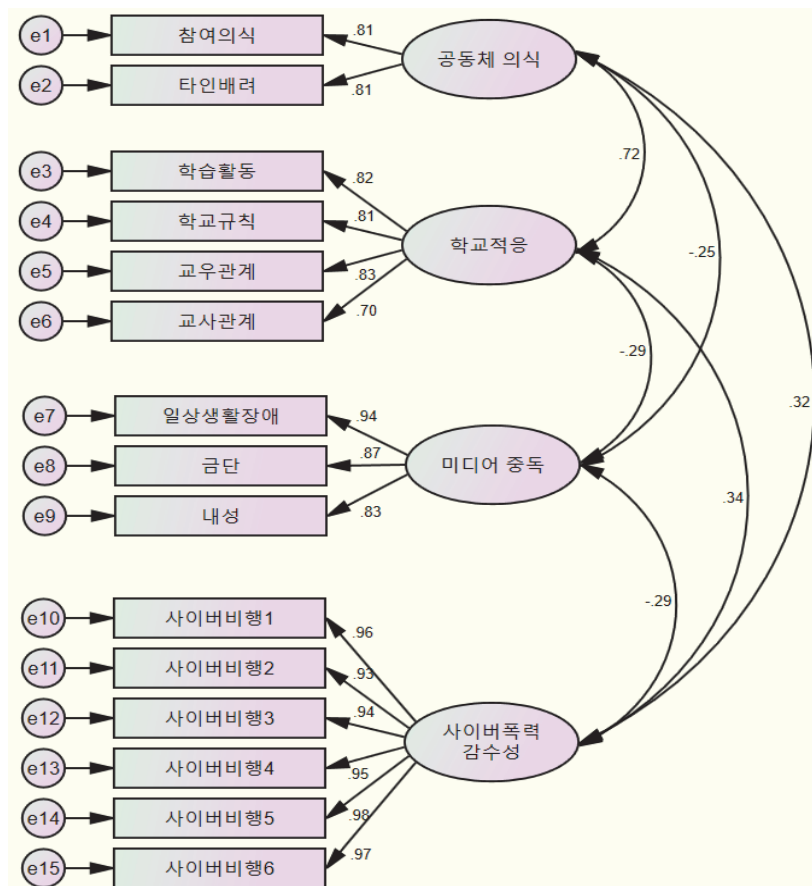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변인의 타당화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변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의 형태 및 측정, 절편 동일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동일성 검증을 토대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측정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인의 타당화를 검증한 결과, TLI .999, CFI .992, RMSEA .038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합도를 토대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 모수치를 살펴본 결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모수치 값에서 요인부하량이 평균 .05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존재하며,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85이하로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문수백, 2009).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결과

## 2. 측정변수 간의 상호상관행렬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각각의 집단에서 측정변수 간 상호상관행렬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그 결과, 아동학대 경험에 상관없이 공동체 의식은 학교적응, 사이버폭력 감수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 중독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은 미디어 중독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 감수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수 간 상호상관행렬

변인	1	1-1	1-2	2	2-1	2-2	2-3	2-4	3	3-1	3-2	3-3	4	
1	1	.921*	.897*	.643*	.553*	.545*	.593*	.495*	-.208*	-.197*	-.178*	-.198*	.285*	
1-1	.925*	1	.653*	.581*	.512*	.472*	.538*	.452*	-.192*	-.187*	-.167*	-.176*	.272*	
1-2	.901*	.668*	1	.589*	.493*	.523*	.540*	.449*	-.186*	-.171*	-.157*	-.184*	.245*	
2	.473*	.437*	.427*	1	.857*	.843*	.855*	.829*	-.254*	-.234*	-.214*	-.252*	.301*	
2-1	.388*	.379*	.326*	.865*	1	.670*	.654*	.594*	-.248*	-.234*	-.203*	-.248*	.276*	
2-2	.377*	.291*	.406*	.837*	.689*	1	.686*	.531*	-.223*	-.214*	-.184*	-.218*	.281*	
2-3	.442*	.421*	.385*	.851*	.689*	.673*	1	.598*	-.231*	-.204*	-.206*	-.225*	.282*	
2-4	.395*	.393*	.334*	.833*	.598*	.532*	.573*	1	-.168*	-.150*	-.140*	-.172*	.193*	
3	-.171*	-.182*	-.127*	-.207*	-.218*	-.187*	-.170*	-.140*	1	.937*	.918*	.899*	-.210*	
3-1	-.142*	-.146*	-.111*	-.183*	-.201*	-.179*	-.125*	-.125*	.936*	1	.814*	.779*	-.207*	
3-2	-.164*	-.172*	-.125*	-.199*	-.201*	-.189*	-.174*	-.124*	.930*	.823*	1	.702*	-.190*	
3-3	-.167*	-.185*	-.115*	-.193*	-.203*	-.151*	-.170*	-.139*	.915*	.795*	.749*	1	-.182*	
4	.266*	.295*	.183*	.317*	.282*	.209*	.304*	.273*	-.367*	-.363*	-.335*	-.327*	1	
없음	M	3.78	3.79	3.78	3.13	3.05	3.21	3.20	3.06	1.68	1.65	1.66	1.74	4.21
	SD	.67	.78	.69	.42	.48	.48	.45	.59	.48	.49	.56	.53	1.33
있음	M	3.65	3.66	3.65	3.01	2.95	3.11	3.10	2.90	1.92	1.89	1.92	1.93	3.68
	SD	.72	.84	.73	.45	.48	.49	.48	.67	.55	.54	.63	.59	1.47

\*  $p < .05$

1. 공동체 의식    1-1. 참여의식    1-2. 타인배려    2. 학교적응    2-1. 학습활동  
 2-2. 학교규칙    2-3. 교우관계    2-4. 교사관계    3. 미디어 중독  
 3-1. 일상생활장애    3-2. 금단    3-3. 내성    4. 사이버폭력 감수성  
 대각선 위는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집단, 대각선 아래는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집단

### 3.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집단 간 동일성 검증을 위해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모형에 대한 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변수	$\chi^2$	df	CFI	TL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381.468	168	.990	.988	.031
모형2: 측정동일성	406.374	179	.990	.988	.031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470.691	194	.988	.987	.032
모형4: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동일성	492.585	198	.987	.986	.033

먼저, 형태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2와 모형 1의 적합도 간 차이를 살펴보면,  $\Delta\chi^2(df=11)=24.906(p<.05)$ 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기각되지만, CFI와 TLI, RMSEA가 모형 1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므로 측정동일성 모형은 성립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어 절편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3과의 적합도 간 차이를 살펴보면,  $\Delta\chi^2(df=15)=64.317(p<.05)$ 로 나타나 절편동일성이 기각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가 모형 2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절편동일성 모형은 성립된다. 잠재평균 값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 4와 모형 3의 적합도 간 차이 [ $\Delta\chi^2(df=4)=21.894$ ]가 유의미하게 하게 나타나( $p<.05$ ) 요인분산동일성이 기각되지만, 모형 3에 비해 적합도 지수가 나빠지지 않아 요인분산동일성 모형은 성립된다. 이러한 동일성 검증을 토대로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집단의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표 4> 각 변수에 대한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 분석

변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	$p$	효과크기( $d$ )
공동체 의식	0	-.132	.006	.308
학교적응	0	-.102	.000	.629
미디어 중독	0	.224	.000	.941
사이버폭력 감수성	0	-.514	.000	.267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 중독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hen(1988)의 효과크기( $d$ )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중간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미디어 중독은 높은 수준의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변인 간 구조관계

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증을 통해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집단에서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각 변인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각 잠재변수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 $\chi^2(df=179)=406.374$ , TLI=.988, CFI=.990, RMSEA=.031],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집단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아동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모수 추정치

변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	
	$B$	$\beta$	$B$	$\beta$
공동체 의식 → 학교적응	.482*	.780	.330*	.556
공동체 의식 → 미디어 중독	-.036	-.050	-.023	-.031
공동체 의식 → 사이버폭력 감수성	.304*	.145	.303*	.142
학교적응 → 미디어 중독	-.287*	-.244	-.246*	-.196
학교적응 → 사이버폭력 감수성	.613*	.181	.248*	.179
미디어 중독 → 사이버폭력 감수성	-.396*	-.137	-.931*	-.327

\*  $p < .05$

그 결과, 아동학대 경험에 관계없이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사이버폭력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이 높을수록 미디어 중독은 낮아지며,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관계에서는 미디어 중독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감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미디어 중독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 분석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6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6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한 결과 <표 6>과 같다.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다[ $\chi^2(df=185)=430.001$ , TLI=.988, CFI=.989, RMSEA=.031].

<표 6>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델 간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Delta df$	$\Delta \chi^2$	$\Delta TLI$	$\Delta CFI$
공동체 의식	→ 학교적응	1	13.364*	.001	.001
공동체 의식	→ 미디어 중독	1	.000	.000	.000
공동체 의식	→ 사이버폭력 감수성	1	.027	.000	.000
학교적응	→ 미디어 중독	1	.108	.000	.000
학교적응	→ 사이버폭력 감수성	1	.007	.000	.000
미디어 중독	→ 사이버폭력 감수성	1	9.115*	.000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6	23.626*	.001	.001

\*  $p < .05$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아동의 공동체 의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 $\chi^2(df=1)=13.364$ ,  $p < .05$ ]와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경로[ $\chi^2(df=1)=9.115$ ,  $p < .05$ ]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2가지의 경로는 <표 5>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집단에 따라 2가지 경로에서의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을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유의미한 차이를 토대로 집단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공동체 의식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아림과 탁영란(2017)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가 공동체 의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부모와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내적작동모델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못해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영준과 성효정(2014)의 연구에서 보호자로부터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은 가정에서 소속감을 경험하면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아동기는 학교라는 사회적 울타리 속에서 교사 및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교에서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이영애, 2019) 또래들과 유대감 형성과 사회적 기술 학습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학교생활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McLaren, Schurmann, & Jenkins, 2015).

또한,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 중독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미디어 중독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옥희와 이경자, 한연현(2017)의 연구에서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애착외상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문제를 회피하고자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세계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끝으로,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사이버폭력 감수성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사이버폭력 감수성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세은과 정지수(2019)의 연구에서 아동기의 학대 피해 경험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따르면(Bandura, 1978), 학습은 주변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태도에 대한 학습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학대로 인해 부모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식

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부모의 행동을 학습한 아동은 폭력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확립하게 되고, 이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행동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문제의식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경로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동체 의식은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폭력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환(2021)의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이 낮을수록 학교폭력의 부적절성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태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공동체 의식이 낮은 아동은 다른 친구들과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협력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중심으로 행동하기 쉽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대면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에서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조절하지 않고 표현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게 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적응은 미디어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미디어 중독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영미와 박윤조(2021)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교의 규칙이나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은 현실보다는 규제가 적고, 실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미디어를 자주 활용하게 되고, 점차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끝으로, 학교적응은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감수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미경과 이서영(2015)의 연구에서 학교 부적응이 높을수록 폭력이나 비행 등과 같은 범죄를 인식하는 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은 학교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성을 습득하게 되는데, 학교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은 부적절한 사회적 기술로 인해 관계 형성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대적인 행동이나 의도적인 규칙위반 등과 같은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이애령, 2004).

반면, 공동체 의식이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은경(2014)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미디어 중독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 대면의 제한과 온라인

의 활용이 급증하면서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온라인이 사용되고 있다. 아동기는 또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로, 또래 간의 지지를 얻기 위한 요소로 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권진, 김미숙, 2019), 미디어의 관계 친화적인 기능이 강화되면서 미디어의 사용이 일상생활의 경험으로 확장되게 된다(김기태, 이현주, 문신일, 2016).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디어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 만큼,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변인 간의 유의미한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가지의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공동체 의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아동학대 경험 유무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학교적응에 상이한 강도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은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길준(2018)의 연구에서 부모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한 청소년은 공동체 의식을 감소시켜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높은 공동체 의식을 지닐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혜와 최려나, 노충래(202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과 친밀감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한대동, 오경희, 2013), 또래들과 함께 성장해가면서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아동은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규칙과 질서를 지켜나가며, 학업을 수행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간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회피하거나 자신만의 세상에 갇히게 된다. 공동체 의식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협력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식으로(McMillan & Chavis, 1986),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태도와 문제해결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사용하여 또래들과의 친밀감 형성이 어려워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자존감의 저하, 학습에 대한 무력감 등이 나타나 학교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아동학대 경험 유무에 따라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폭력에 상이한 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진오(2018)의 연구에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이 사이버불링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미디어 중독은 미디어 사용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기가 어려운 것으로(김봉섭, 2006), 인지적 발달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아동은 규제나 제한, 어른의 감시가 적은 온라인상에서 더욱 반항적이고, 분노를 쉽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호성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지게 된다(표갑수, 김혜정, 2012).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쉽게 공감하지 못하게 되어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아동기에는 사회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사회적 행동과 규칙에 대한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이 발달하게 된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전전두엽의 부피와 두께가 줄어들고, 다른 신경망과 연결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에 문제가 생겨 자기 조절력은 감소하고 충동성이나 공격성은 강해지게 된다(이명숙, 2019). 또한,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낮으며, 대인관계의 긍정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상황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다(신혜영, 최해림, 2003). 이로 인해 익명성을 가지고 낯선 사람들과도 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고,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더욱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Olweus, 1993), 이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변인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과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폭력은 세대 간 전이가 나타나는 것으로(Maas, Herrenkohl, & Sousa, 2008),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더욱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처럼 아동학대라는 부모의 폭력적 행동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토대로 시·공간적 경계를 넘나드는 온라인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 요인의 영향력의 차이를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추후 사이버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인지행동이론(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에 따르면, 인지와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정적 인지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토대로 본다면, 아동의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관련된 인지적 측면에 대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발생에 대한 인지적 측면으로서 감수성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는 점과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기에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디어 중독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폭력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둘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디어의 보편화로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미디어의 기능적인 면에서 아동이 성인보다 활용도가 높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미디어 사용의 부정적 관점으로서 미디어 중독 경향성과 이러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문제 인식에 대한 감수성의 인과관계를 통해 온라인 윤리의식에 대한 함양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경험과 관련하여 신체 및 언어적 학대를 중심으로 집단을 분류하였으며, 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은영과 전유영(2019)의 연구에서 학대 유형에 따라 피해 아동의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방임의 유형에 따른 변인 간 차이와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할 수 있는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중독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서 부모 및 학교, 또래관계 등과 관련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사이버폭력 감수성을 예방하기 위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감수성의 전체값을 중심으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사이버폭력의 하위유형을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하위유형 각각에 대한 아동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감수성의 하위요인 각각이 다른 변인들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적 접근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이러한 아동학대를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아동학대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여 대인관계와 적응, 폭력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역기능적 발달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유영재, 김나리, 2019).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부모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기 이전에 예비부모교육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며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형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 문제를 치료함으로써 부정적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이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으나 공동체 의식은 미디어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체 의식과 미디어 중독이 부적(-) 관계로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수록 미디어 중독이 낮아지지만 그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이는 미디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공동체 의식보다는 학교적응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의 제한이 생겼고 아동의 또래 관계 및 학업 등 학교에서의 생활들이 대부분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완화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시 생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3년간의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학교적응에 어려움 겪고 있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미디어의 활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더욱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이는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문제 및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갈등으로 인해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조영미, 김동민, 송경수 외, 2009)를 고려하여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향상을 도와주고 또래와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폭력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적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아동학대 경험의 유무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를 중심으로 일관된 사이버폭력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상을 분류하여 사이버폭력 감수성 향상에 더욱 영향을 미쳤던 변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의 경우 소속감 및 친밀감 등의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학교에 잘 적응해나감으로써 사이버폭력에 대한 윤리 의식을 형성해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여야 하며, 만약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이에 동조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버폭력 감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고미숙(2016).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5(3), 295-306. DOI: 10.5934/kjhe.2016.25.3.295
- 고수연·배성만(2018).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부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9), 203-224. DOI: 10.21509/KJYS.2018.09.25.9.203
- 고정리(2013). 유아공동체의식 함양 활동 구성 및 적용 효과.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구지윤·김유나(2016).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8), 287-309. DOI: 10.21509/KJYS.2016.08.23.8.287
- 권미나(2007). 빈곤아동의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권진·김미숙(2019).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사이버폭력의 관계 연구: 게임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4(2), 41-53. DOI: 10.21097/ksw.2019.05.14.2.41
- 권혁기(2021). 강점기반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기태·이현주·문신일(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네트워크 크기, 이용행태, 또래친구와의 관계지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4), 5-40.

- 김동일·이은아·정여주·김동민·조영미(2008). 아동, 청소년상담: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9(4), 1703-1722.
- 김봉섭(2006). 디지털기기 의존증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디어 측면에서의 접근. KADO 이슈리포트, 3(6), 1-36.
- 김선아(2017). 고등학교 청소년의 부모학대, 우울감,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성 연구. Crisisonomy, 13(8), 147-163. DOI: 10.14251/crisisonomy.2017.13.8.147
- 김아림·탁영란(2017). 청소년 가족 관계와 학대, 학교폭력 피해가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매개 역할. 아동학회지, 38(6), 105-120. DOI: 10.5723/kjcs.2017.38.6.105
- 김영미·박윤조(2021).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7), 480-487. DOI: 10.5762/KAIS.2021.22.7.480
- 김옥희·이경자·한연현(2017). 애착외상과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의 관계: 부적정서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8(3), 95-114.
- 김은경(2014).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에 대한 치유방안: 신앙공동체를 통한 기독교 영성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은혜·최려나·노충래(2020).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복지연구, 22(4), 265-291. DOI: 10.19034/KAYW.2020.22.4.10
- 김재엽·황현주(2016). 아동학대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3, 105-133.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영·장기열(2019). 중학생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사이버불링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 교류분석상담연구, 9(2), 165-184. DOI: 10.35476/taca.2019.9.2.165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환(2021).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박성희·강현아(2020). 아동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또래 애착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2, 99-123. DOI: 10.20993/jSSW.52.5
- 박영준·성효정(2014). 보호자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6, 85-114.

- 백선희(2020).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사이버비행 감소성, 조기 대처가 답.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2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신혜영·최해림(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95-307.
- 우수정(2018).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771-786. DOI: 10.22251/jlcci.2018.18.2.771
- 유길준(2018).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4), 1207-1220.
- 유영재·김나리(2019). 폭력의 학습-아동학대 경험과 범죄행동 간의 관계. 한국범죄심리연구, 15(4), 69-86.
- 이란희·유형근·남순임(2015).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6), 65-86.
- 이명숙(2019). 범죄인의 신경생물학적 기능손상과 교정치료. 교정담론, 13(1), 73-97.
- 이애령(2004).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영애(2019).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2), 25-37.
- 이은영·전유영(2019). 아동학대 관련 그림책에 나타난 학대유형과 피해아동의 특성. 인문사회 21, 10(4), 1621-1636. DOI: 10.22143/HSS21.10.4.116
- 이진선·강영숙·오종철·박시균(2019).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인권의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공정책연구, 36(2), 391-412. DOI: 10.33471/ILA.36.2.16
- 정규형·이상훈(2015).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대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171-190. DOI: 10.19034/KAYW.2015.17.4.08
- 조영미·김동민·송경수·유지현(2009). 아동, 청소년상담: 청소년 인식에 의한 인터넷 중독의 원인 탐색: 개념도 접근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1), 469-483.
- 조윤정(2006).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실제 인권옹호 경향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최미경·이서영(2015). 공감중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한 학교부적응청소년의 공감능력, 학교폭력인식과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7(1), 75-96.
- 최연(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미디어중독 현상과 미디어교육 방안 연구: 다문화가정 부모와 다문화교육 전문가와의 FGI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최진오(2018). 초등학생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분석. *초등교육연구*, 32(4), 53-78. DOI: 10.29096/JEE.32.4.03
- 표갑수·김혜정(2012). 초등학생의 아동학대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0(3), 103-127.
- 푸른나무재단(2021). 2021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 서울: 푸른나무재단.
- 하아영·조한익(2020). 청소년의 개인내적 변인과 개인간 변인이 사이버비행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비선형 종단다층모형의 적용. *교육심리연구*, 34(1), 115-142. DOI: 10.17 286/KJEP.2020.34.1.06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15).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
- 한대동·오경희(2013). 초등학교에서의 공동체적 수업실천과 공동체의식이 학교폭력 자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3(4), 207-235. DOI: 10.32465/KSOCIO.2013.23.4.008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세은·정지수(2019).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형사정책연구*, 30(4), 69-104. DOI: 10.36889/KCR.2019.12.31.4.69
- Bandura, A. (1978).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12-29.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of the soci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 Hinduja, S., & Patchin, J. W. (2014).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yberbullying*. California: Corwin press.
- Hirschi, T. (2017). *Causes of delinquency*. New York: Routledge. DOI: 10.4324/9781315081649
- Maas, C., Herrenkohl, T. I., & Sousa, C. (2008). Review of research on child maltreatment and violence in youth. *Trauma, Violence, & Abuse*, 9(1), 56-67. DOI: 10.1177/15248380073111
- McLaren, S., Schurmann, J., & Jenkins, M. (2015). The relationships between sense of belonging to a community GLB youth group; school, teacher,

and peer connectedness; and depressive symptoms: Testing of a path model. *Journal of Homosexuality*, 62(12), 1688-1702. DOI: 10.1080/00918369.2015.1078207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DOI: 10.1002/1520-6629(198601)14:1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2020 The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Sejong: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lweus, D. (1993).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Long-term consequences and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In S. Hodgins (Ed.), *Mental disorder and crime* (pp. 317-349). New York: Sage Publications.

Piaget, J. (1964). Cognitive development in children: Piaget development and learning.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2, 176-186.

van der Rest, J., & Brouers, F. (1983). Erratum: Spin susceptibility of the doubly degenerate Hubbard model. *Physical Review B*, 28(7), 4027. DOI: 10.1103/PhysRevB.28.4027

- 논문접수: 8월 3일 / 수정본 접수 9월 13일 / 게재 승인 9월 20일
- 교신저자: 성정혜, 해운심리상담센터 원장, wjgdp8704@naver.com



## Abstract

### A structural analysis among community consciousness, school adaptation, media addiction and susceptibility to cyber violence

Junghye Su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community consciousness, school adaptation, media addiction affect susceptibility to cyber violence and how these variables are related to the child ab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ty consciousness, school adaptation, media addiction and susceptibility to cyber violence depending on child abuse. Second, the influence of community consciousness on school adaptation differed depending on child abuse. Additionally, media addiction on susceptibility to cyber violence differed depending on child abuse. These results, can be foundational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ounseling and other programs designed to prevent the increase susceptibility to cyber violence.

Keyword: community consciousness, school adaptation, media addiction, susceptibility to cyber violence, child abuse